

ESCO사업에 새로운 지자체의 역할을 조명하다

경기개발연구원이 'ESCO 사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ESCO 사업에 관한 인식조사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고 경기도의 ESCO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 현재의 ESCO 산업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경기도는 인구 증가 및 개발 압력이 높고 전국에서 에너지 비중이 높은 도시이자, 에너지 절약 투자에 대한 잠재적 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이번 연구는 ESCO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살펴보고 경기도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ESCO사업 활성화 방안과 지자체의 역할을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경기개발연구원의 환경정책 연구부 연구위원인 고재경 박사에게 이번 연구의 성과와 ESCO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얘기를 들어보았다. 글 편집팀·사진 최미연



“경기도에서 ESCO기업에 대해서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와 컨설팅을 제공해 줄 필요를 느꼈습니다.”



새로운 지자체, 희망찬 포부를 듣다

경기도의 싱크탱크라 불리는 경기개발연구원은 1995년 3월 경기도와 31개 시·군 그리고 지역 기업들의 공동 출연으로 설립된 정책연구 기관이다. 고재경 박사에게 이번 경기도 ESCO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는 어떠한 계기로 인해 수행하게 되었는지 물어보았다.

“그동안 ESCO 산업에 지자체의 역할이 없었는데 지자체가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번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실 지자체의 재정여건이 안 좋은 만큼 자체예산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ESCO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을 통해, 정부를 통해 투자를 하는 것이고, 그런 투자를 통해 에너지효율을 향상할 수 있으니까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또 경기도가 에너지효율투자시장의 잠재적인 수요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ESCO 사업의 지자체 역할을 강화해서 지역의 에너지 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생각했습니다.”

지자체의 역할을 모색하는 데서 출발한 이번 연구를 통해 고재경 박사는 경기도가 ESCO사업의 새로운 수요처가 될 것이라 보고 있었고, 지역의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 전망했다. 아직 ESCO의 인지가 부족한 부분은 시·군정책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밝히며 기업이 ESCO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한층 쉽게 준비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힘을 실어 줄 것을 강조했다.

“에너지 관련부서에서는 그나마 ESCO를 아는데 나머지는 대부분 모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무원 절반 이상이 ESCO를 전혀 모르고 건물 수요자 대상으로 에너지를 많이 쓰는 기업과 에너지를 적게 쓰는 기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곳은 47% 정도가 ESCO를 알고 있습니다. 수요자와 정책담당자를 봤을 때 지자체 정책담당자가 ESCO에 대한 인지도가 약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리고 ESCO 관련된 정보를 어디서 얻느냐 물어봤을 때 공무원은 인터넷과 대중매체가 많았습니다. 그 다음 정부나 에너지관리공단, 협회를 통해 ESCO 관련 정보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건물주 ESCO 수요자 같은 경우 정부에서 설명회를 많이 해서 그런지 공무원보다는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건물주는 ESCO 기업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ESCO를 알게 되는 경우도 의외로 많았습니다. ESCO 역시 홍보 영업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하는 대목입니다.”

ESCO 사업자의 만족도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 모색해보기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에너지 가격이 약하다고 고박사는 설명하면서 지자체가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좋겠다는 사람들의 의견이 많았음을 역설했다.

“기업의 입장에서 에너지 가격이 낮아서 아무리 에너지개선효율 투자를 해도 비용대비 효과가 크지 않은 겁니다. 건물주가 에너지 절약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가 약하다는 그런 문제를 많이 제기했습니다. 지자체에서도 그 분들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나 그런 것들을 제공하면 좋겠다는 제안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고 박사는 전반적으로 정보부족, 인식부족을 문제로 들면서 ESCO 사업에서 가장 장애요인 중 하나가 에너지 절감 성과에 대한 사후관리 문제라는 점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그리고 병원, 하수처리장, 아파트, 대학교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예로 들며 체계화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했다.

“설문조사로 ESCO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는데 에너지 절감효과, 에너지비용 절감효과 환경 질 개선, 쾌적성은 만족도가 괜찮았는데 공무원, 수요자는 사후관리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에너지 절감성과를 이론적, 수치적으로 산정했지만 나중에는 그만큼의 절감성과를 정확히 산정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연구 수행시 저희가 가본 곳이 아파트, 대구 하수처리장, 분당에 있는 서울대병원이었습니다. 대구하수처리장은 일단 하수처리장의 유입량이 비슷하니까 실제로 에너지절감투자를 하고 나서 그 성과가 눈에 딱 보이고 확인하기가 쉬웠습니다. 이곳은 에너지절감 체감 효과가 높아서 다른 하수시설로 확대율이 높았습니다. 분당에 있는 병원 같은 경우도 에너지사후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프로그램화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사업효과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서 신관 증축하는데 ESCO 사업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에너지정책 담당자가 에너지 절감효과가 확실하다고 느끼면 ESCO를 확대·적용한다는 사실입니다.”

ESCO 산업 활성화에 정부의 투자와 지자체의 노력 필요

고 박사는 단순히 설명회 위주가 아닌 사례별로 공감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면서 그동안 ESCO사업에서 소외되어 있던 건물들에 대한 정부의 투자가 필요함을 얘기했다.

“수익성이 낮은 중소형 건물, 저소득 아파트 단지에는 정부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기도도 서울시의 기후변화 기금처럼 에너지 기금을 설치해서 민간시설을 보완하는 역할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SCO 사업 활성화 방안이 나왔으니까 정부에서 자금 지원을 확대하면 경기도가 에너지 절약 투자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도출한 다음 유형별로 교육이나 홍보를 해주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상이 되는 건물이 어떤 것이 있고 우리가 에너지 투자를 했을 때 실제적으로 적용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 어떤 것인지 파악하는 자체가 지자체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또한 현재 전국 44개 대학에서 펼치고 있는 그린캠퍼스운동과 같이 결합하여 다양한 ESCO활성화 방안을 모색한 것도 주요 성과였다며 밝게 웃는 고재경 박사, 아울러 그녀는 아직 홍보 중인 그린콜센터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린콜센터는 에너지 상담을 해주는 것으로 ESCO 사업과 연계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직 이용빈도가 낮은 초기 단계로 그린 홈 컨설턴트(간단한 가정내 에너지 절약을 제안하는 일을 함)와 함께 국민들에게 정부의 많은 홍보가 필요합니다. ESCO 사업의 장애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린콜센터를 확대하여 One-Stop 에너지 정보 센터를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도 ESCO 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에너지절약 목표관리제 대상 공공기관, 하수처리 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대학, 수영장 등 체육관, 사회 복지시설, 종합병원 등 공공성이 강한 건물을 중심으로 에너지 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민간에서도 공공부문에서 입증되면 투자하지 않을까’ 한다면 고 박사는 앞으로 경기도 ESCO가 활성화 될 것에 대한 기대를 감추지 않았다. ESCO시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인 경기도가 앞장서 ESCO 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게 된다면 앞으로 ESCO사업의 미래는 한층 밝아질 것이고, ESCO 시장 또한 더욱 증가할 것이라 보인다. 2011년 ESCO사업의 희망찬 도약과 새로운 지자체의 활약을 기대해본다.

